

# 타나카·론지... 일상적 삶이 민족적 동질성을 복돋는다

〈노란 가루로 만든 크림〉

〈치마모양 바지〉



전통의 건축문화

황금빛 신비의 나라 미얀마

⑨이국적 풍모, 미얀마의 습속

남녀노소 입는 민족의상 '론지'

슬리퍼와 함께 일상복으로

전통모자 '가용바웅'

국가적 행사·결혼식때 착용

전통화장품 노란 가루 '타나카'

자외선 차단·피부 탄력 유지

민족적 기호식품 '콩야열매'

피로회복 효과있지만 향정신성 물질

미얀마에 들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얼굴과 복장이다. 얼굴에 타나카라는 노란 가루로 만든 크림을 바르고, 남자들이 천을 둘러 만든 치마 모양의 바지를 입는다. 이러한 타나카와 치마바지 론지, 그리고 모자 가용바웅은 불교와 더불어 다 종족 국가인 미얀마인들의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밝혀주는 독특한 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민족의상인 론지는 어린 시절부터 슬리퍼와 함께 대부분 미얀마인들에게는 일상복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위 관료들의 공식적인 행사장에서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이 흔히 눈에 띈다. 길거리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슬리퍼를 신고 있는 풍경을 자주 본다. 아마 덥고 습한 날씨에 양말을 신고 다니기 보다는 맨발이 당연한 것이라 이해된다. 추운 지방에서 두꺼운 양말과 긴 장화를 신는 것처럼...

론지가 치마바지라면 인지는 윗도리 옷인 상의(上衣)이다. 남자들은 주로 배 언저리에서 매듭을 짓는 반면 여자용 론지는 트메인이라고 하여 왼쪽 허리춤에서 단단히 접고나와 오른쪽 허리춤 안으로 양끝을 모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없이 대중 맨 것 같은 데도 흘러내리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대중들이 보고 있는 데도 론지를 입는 상태로 목욕을 한다. 특별한 목욕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서 알몸을 론지로 가리고 그 안에서 물로 씻는 방법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윗도리 인지는 목 부분이 차이나 스타일로 단추가 있는 티셔츠가 일반적이다. 소매는 길고 짧은 두 종류가 있지만 공식 모임에는 긴 소매를 입어야 정장이 된다. 한편 여성의 상의는 상체가 꼭 끼는 브라우스가 일반적이며 색깔은 다양하다.

론지의 재료는 면, 비단, 공단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여 예복 등으로 만들어 입는다. 이처럼 론지의 모양은 단순하지만 색깔이나 디자인은 다양하다. 외국인들이 흥미롭게 사서 입어 보지만 웬지 어색하다.

모자처럼 머리에 덮어 쓰는 가용바웅은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국가적인 행사 때나 결혼식에는 착용한다. 영국 식민지시기에만 해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여러 형태의 색과 형식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미얀마를 여행하다 보면 어린이나 젊은 여인, 아주머니들이 얼굴 양 볼에 붉게 노란 가루를 마치 연지처럼 바른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드물게 남자들도 바르는 이가 있다. 한번 발라 보라고 권하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타나카라는 나무의 가루이다. 향수처럼 약간 냄새가 나고 피부를 보호하며, 열을 줄여준다고 하는 전통화장품이다. 재래시장이나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말린 타나카 나무를 장작처럼 가지런히 쌓아 놓고 판다. 보기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타나카 나무의 가루를 바르면 자외선이 차단되어 얼굴이 타지 않고 피부가 탄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가루 분말도 포장한 제품은 길거리에서

1 타나카를 바른 소녀 2 씹는 담배, 콩야를 빈랑나무 잎에 싸고 있는 모습. 3 미얀마의 전통의상인 론지는 치마바지 스타일로 길거리는 물론 고위 관료들의 공식행사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출처 위키미디어>



쉽게 살 수 있다.

사용 방법은 벼루처럼 생긴 돌판 위에 대고 손으로 타나카 나무를 잡고 돌리면서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물에 개어서 바르면 된다. 어떤 때는 물을 뿌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 타나카를 발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천년전 고대 도시국가시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세발제는 '뜨요'와 '킨봉'이 있다. 미얀마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데 이 머리를 손질하고 가꾸기가 쉽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 현대인들이 쓰는 샴푸처럼 세발제를 사용했는데 뜨요라고 불리는 나무껍질과 아카시나무에서 채취하는 킨봉이라는 끈적끈적한 나무열매가 주성분이다. 이들을 가열하고 물에 담가 채로 천 다음 서로 섞어 사용한다. 이게 바로 과거 미얀마인들의 샴푸이다. 마치 우리의 오일 단오날 청포 삶은 물에 머리 감기와 비슷한 것 같다.

젓가락이 동아시아를 상징하는 문화적인 특징이듯,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문화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Betel Nut을 씹는 것이다. 이를 타이완에서는 빈랑이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판(Paan), 미얀마에서는 콩야(Kun-ya)로 불리는 열매를 벼루추추 잎에 싸서 식후나 평소에 씹는다. 이는 담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널리 즐기는 기호식품이며 향정신성

물질이다. 빈랑은 태평양 연안, 동남아시아, 동아프리카 등 열대지방 일부에서 자라는 종려나무의 일종이다.

콩야(Kun Ya)로 부르는 빈랑(Betel Nut)을 씹는 모습을 미얀마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빈랑나무 열매에 석회성분의 작은 덩어리를 빈랑 잎에 싸 씹으면 상쾌한 느낌과 각성효과와 양치효과가 있다. 또한 피로회복과 긴장 해소, 입 냄새를 줄이는 효과와 치통에 대하여 마취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빈랑은 대소변을 잘 보게 하여 변비와 부종을 치료하고, 구충효과와 함께 흉·복부의 팽만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빈랑나무 열매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래 전부터 미얀마인들이 즐겨 씹던 콩야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참 부정적이고 불쾌하게 여기기까지도 한다. 콩야를 씹을 때 빨간색으로 변한 침이 묻은 입술과 검게 변한 이는 이방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다. 특히 거리에서 빨간 침을 뱉는 모습이나 길바닥 군데군데의 붉은 침은 불결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워낙 깊게 자리하고 있는 콩야 씹는 전통이 쉽게 사라질까 싶다.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미얀마인들의 소박한 일상과 독특한 정취를 엿볼 수 있는 재래시장 풍경.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